

반격의 코스닥

KOSPI 6,358pt(+1.6%), KOSDAQ 780pt (+5.9%)

① 해외 상황

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빅테크 호실적 더해지며 강세

- 전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(나스닥 +2.1%, S&P500 +1.5%, 다우 +1.3%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1.1%).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 및 대화 재개 압박에 국제 유가 WTI 80달러선에서 하향 안정화,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며 미 10년물 금리도 4.7%선까지 하향 안정화. 유가·금리·주식 동반 강세의 전형적 안도 랠리 전개되며 S&P500, 6월 2일 고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목전. 상승은 하이퍼스케일러 4사가 주도(알파벳 +4.4%, MS +4.9%, 아마존 +4.6%, 메타 +6.0%). 아마존 시가총액 3조달러 돌파, 특히 지난주 Capex 우려에 급락했던 메타가 최대 반등폭 기록하며 AI 투자 낙관론 회복 확인

② 수급

외국인/기관 순매도 둔화

-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+0.8조, 외국인 -0.4조원, 기관 -0.5조원 순매수(금투 -0.15조원, 사모 -0.4조원). 외국인/기관 2거래일 연속 순매도 대응하였으나 강도는 크게 둔화. KOSDAQ은 개인 -0.26조원, 외국인 -0.28조원, 기관 +0.54조원 순매수

③ 특징업종

메모리 반도체 빈자리, AI 인프라/코스닥으로

- 코스피 대형주 +1.4%, 중형주 +4.0%, 소형주 +2.7%. **1) 소프트웨어:** 엔비디아 등 투자 예정인 AI팩토리 사업계약 구조 공개로 NAVER(+9.2%) 급등.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 돌입하며 SK텔레콤(+11.5%), LG씨엔에스(+9.0%) 등 관련주 강세. **2) 전력 인프라:**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급등에 동조. 두산에너지(+7.8%), HD현대일렉트릭(+6.4%), 효성중공업(+6.4%), LS ELECTRIC(+4.6%). **3) 이차전지:** ESS향 수요 부각 및 코스닥 순환매 수혜. LG에너지솔루션(+4.0%), 삼성SDI(+7.7%), 에코프로(+5.9%). **4) 방산:** 실적 기대 작용. 한화에어로스페이스(+9.3%), LIG D&A(+14.6%)

④ 이벤트

대형주 실적주간 마무리, 시선은 재차 매크로로

- 1) 美 ISM 비제조업 PMI(8/5 23:00) 2) 美 고용보고서(8/7 21:30) 3) 美 7월 CPI(8/12 21:30), PPI(8/13 21: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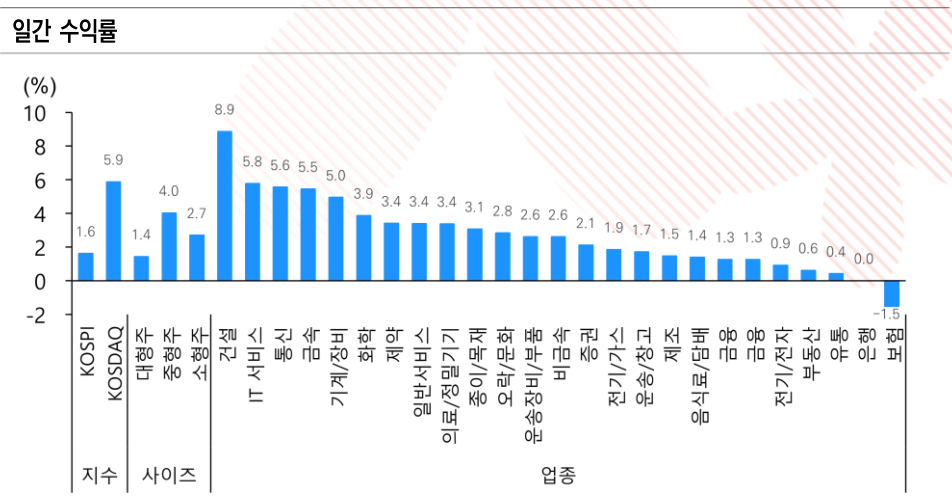
⑤ 시장

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급감, 장기간 소외된 코스닥에 반영되기 시작

- 금일 KOSPI +1.6%, KOSDAQ +5.9% 상승 마감. 반도체 대형주에서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으로의 수급 이동 지속.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는 등 2거래일 연속 코스피 아웃퍼폼.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대금 축소. 규제 직전(7/30) 통합 13.9조원에 달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금일 1.9조원 수준까지 급감, 매도대금 T+2 인정에 따른 회전을 하락이 실제 수치로 확인. 반복매매 자금의 이탈이 대형 반도체 쏠림을 완화시키고, 그 빈자리를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과 중소형주 순환매가 채우는 구도. 규제 강화와 함께 주장해온 수급 정상화 경로가 확인
- 금일 메모리 반도체의 상대적 부진에는 수급 외 재료도 가세. CXMT의 베이징 공장 추가 증설 뉴스플로우가 메모리 공급 우려를 자극하며 투심에 부담으로 작용했고, 이란의 추가 협상 부인 보도 역시 미약하나 하방 압력으로 가세. 다만 장 막판 나스닥 선물 반등과 동반해 지수 상승 전환 마감

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		
(단위: 억원)	KOSPI	KOSDAQ
기관	-5,394	5,434
외국인	-3,706	-2,772
개인	8,186	-2,587
거래대금	278,755	58,322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이재원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